

HEIBAC '94

참가자 127명 대상 설문조사

참가자가 말하는 HEIBA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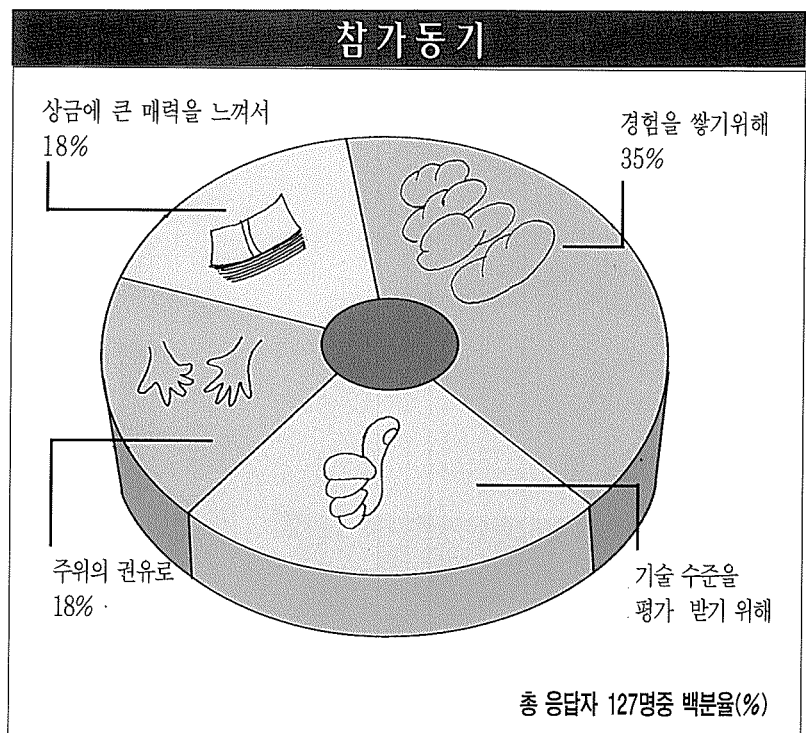
최초의 현장에서의 기술 경연대회로 관심을 모은
제 1회 하이박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.
그러나 이런 평가는 주최측이나 일부의 의견일 수 있다.
이에 본지는 실제로
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
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
다음 대회에 발전적인 자료로 제시코자
총 참가자 245명 중 52%인
127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.

I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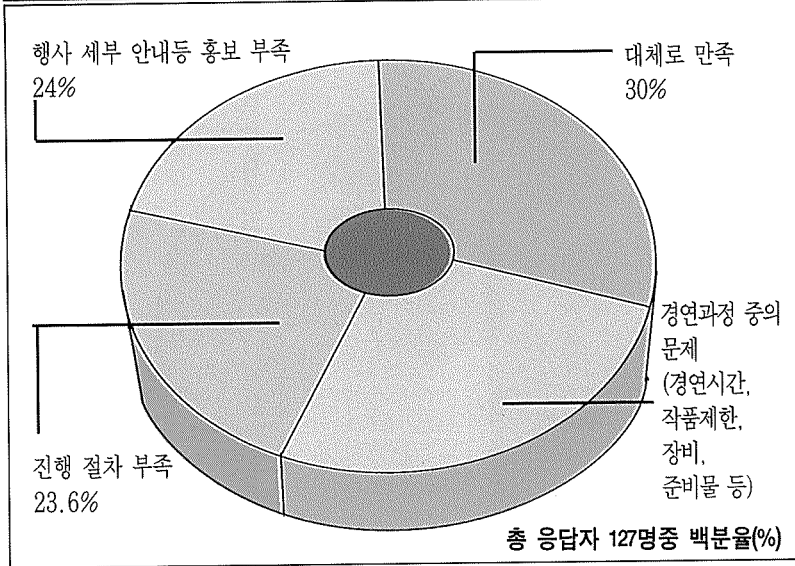
기술 수준 평가 위해 35%로 가장 많아.

총 응답자 127명 중 35%인 37명의 기술 수준을 평가 받기 위해 참가했다고 대답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험을 쌓기 위해 29%, 주위의 권유 18%, 상급에 큰 매력을 느껴서 18%로 나타났다.

4가지 항목 공히 기술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 수상에 자신 있는 기술인이 참가한 것을 알 수 있다.



미흡했던 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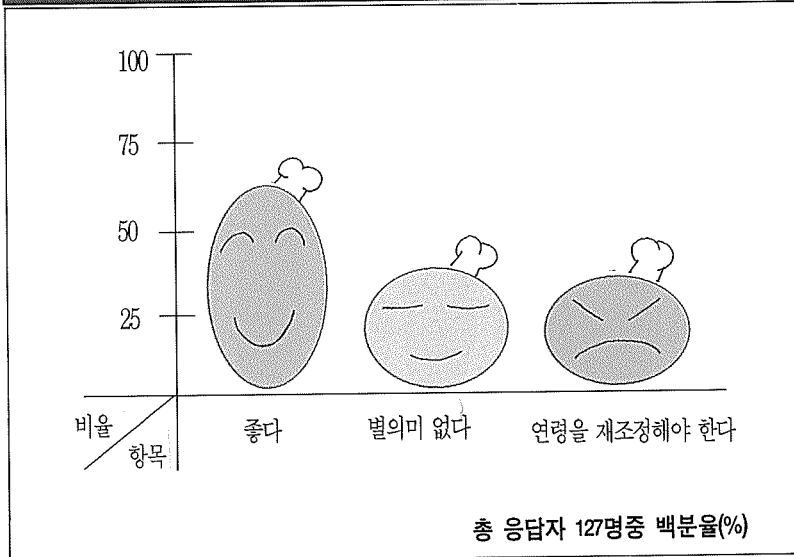
2 이번 대회에 미흡했던 점은?

경연 관련 세부 안내 부족, 진행 미숙 꼽아

총 응답자 127명 중 30%가 이번 대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, 경연 과정 중의 문제점 30%, 홍보 부족 24%, 진행절차 미숙 23.6%로 나타났다.

조사 자체가 이번 대회에 미흡했던 점을 밝혀내 다음 대회에 반영하려는 의도였던 만큼 만족했다는 응답보다 문제점에 대한 반응이 높았다. 문제점 중 지방 출전자의 경우 대회장을 찾기 힘든 어려움과 실연에 따른 준비물 등 세부 사항 안내 부족, 실연장에서의 오븐 등 시설물에 대한 불만이 주류를 이뤄 차기 대회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.

대상 선정 희망 분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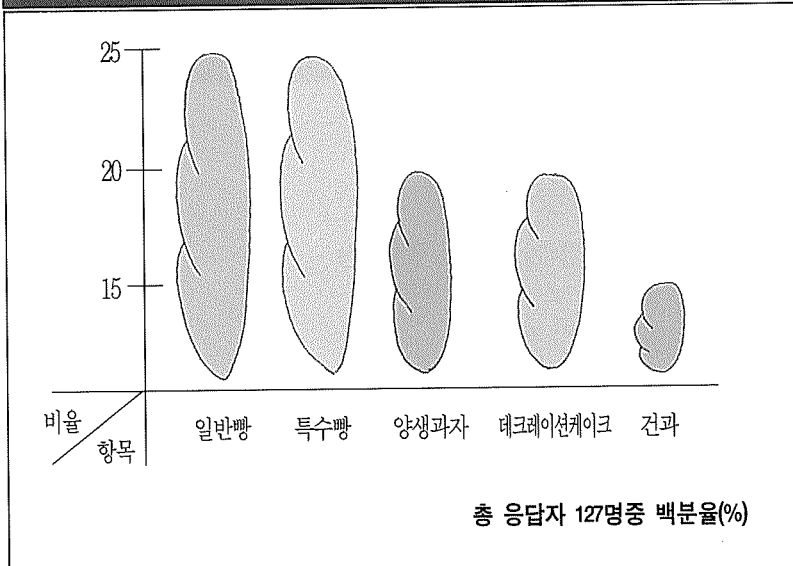
3 35세를 기준으로 참가자를 구분한 데 대한 견해는

참가자 60%가 긍정적 평가

총 응답자 107명 중 60%의 응답자가 수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참가자의 연령 구분을 기준으로 경연을 실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별의미 없다는 응답이 33%, 연령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0%로 나타났다.

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 중에는 35세 이하의 층이 많았고 이들은 이번 대회 연령 구분이 35세에서 다음 대회에는 30세 정도로 재조정해야 보다 젊은 기술인들에게 수상의 기회가 많이 돌아가 기술 발전 및 참여가 늘 것이라고 응답했다.

참가 연령 구분 반응



4 이번대회에는 공예 부문을 대상으로 정했는데 답음에는 어느 부문이 좋은가?

일반빵과 특수빵이 비슷한 분포

총 응답자 123명 중 일반빵이 24%, 특수빵 23.5%, 양생과자 18.7%, 테크레이션케이크 18%, 건과 15.4%로 어느 부문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면 좋은지 특별히 두드러진 분야가 없었다. 이런 결과는 응답자들이 자신이 참가한 분야와 자신있는 부문을 꼽은 까닭으로 추정된다. 단지 실용성과 시장성면에서 떨어지는 공예 부문보다 타 부문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.

5 다음 대회에 참여할 용의가 있는가? 있다면 어느 부문인가.

참여 용의 71%, 부문은 엇비슷한 수준

총 응답자 119명 중 71%가 다음 대회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고 29%가 없다고 응답했다.

한편 참여 희망 부문은 특수빵, 양생과, 공예 부문이 18%로 똑같이 나타났고, 테크레이션 17%, 일반빵 16%, 건과 14%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.

이와 같은 결과는 이번 대회 총 참가자에 대한 부문별 참가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나 참가자가 적어 수상에 대한 경쟁률이 약했던 양생과 부문의 참가 희망 비율이 높아졌다.

설문 총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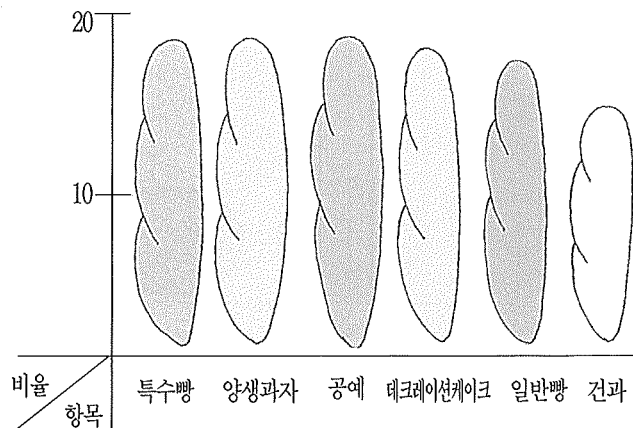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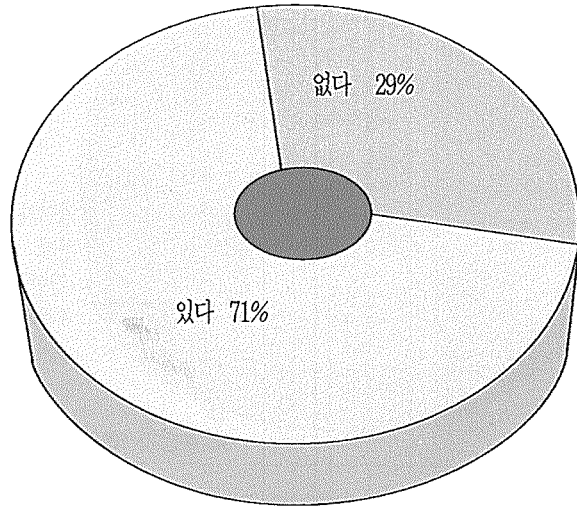
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참가자들은 참가 동기에서 응답자 중 기술수준을 평가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.

행사 기간 중 미흡했던 점을 묻는 항목에서는 오븐 등 시설과 불리한 경연 위치 등 경연과정 중 문제점, 준비물, 경연 세부, 안내 부족, 경연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이 지적돼 차기 대회 개선점으로 떠올랐다.

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호평받은 점은 연령을 구분해 수상 기회를 늘린 점이었으며 반면 연령 하향 조정도 거론됐다.

또한 응답자 중 상당수가 시장성에 주안점을 뒀 공예 부문 외 타 분야에서 대상을 선정하기를 바랐다.

다음 대회 참가 용의와 부문



총 응답자 119명중 백분율(%)

심사위원 명단

위원장 : 권상범
부위원장 : 홍행홍
김상엽

●1부 (테크레이션 케이크, 양·생과, 건과, 공예부문)

1부 부장 : 임현양

위원 : 권상범, 김상엽, 박종인, 김혜덕, 서정웅, 김천주, 황혜성, 주현규, 김태환, 김규호, 박근성, 김종익, 고진곤, 이 강, 박승남, 김여숙, 박찬희, 오주복, 권영오, 최준휴, 황규홍, 임태희, 조용기, 김윤규

●2부 (일반빵, 특수빵, 공예부문)

2부 부장 : 김춘기

위원 : 홍행홍, 고원방, 하숙정, 장학길, 이홍렬, 서인호, 용성복, 윤계선, 한종환, 안승호, 방성열, 김영모, 김창식, 최강병, 노재화, 나기학, 정희태, 최상용, 김종수, 길창덕, 최봉규, 윤용호, 김병일, 임재순